

$\beta \succ w$ 에 대하여

김 경 아

I

이 글은 김완진(1972)의 '다시 $\beta \succ w$ 를 찾아서'에서 남겨두었던 문제들을 나름대로 새로운 측면에서 기술함으로써, 국어 음운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beta \succ w$ 라는 음운변화의 공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beta \succ w$ 라는 통시적인 음운변화의 공식이 공시적인 음운교체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도록 순경음 β 의 결합적 변이형들의 모습을 좀더 정밀히 검토하여 기술해 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떠나가는 데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관점은 음운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어떤 통시적인 변화가 결과적으로 간단히 ' $A \succ B$ '라고 기술될 수 있다고 해도 하나의 공시태의 단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변이형들의 실현이 관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자와 음운과 음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더불어 검토함으로써 그 진실한 모습에 다가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II

2.1 순경음 ' β '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설진된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본고가 어느 정도 시대착오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이 소실문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β 의 문제가 통시적인 음운과정, 즉 음운변화의 기술에 하나의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 $\beta \succ w$ '라고 하는 음운변화가 음운부의 어느 층위에서 일어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비단 순경음의 변화에만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경음의 소실 문제는 음운체계 내에서의 대립 체계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일 뿐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 음운이 겪는 변화에 대한 정밀한 기술을 통해 음소배열에서의 변화라든지, 교체에서의 변화의 유형을 검토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도 있는 때문이다. 즉 개별 음운의 소실이나 합류, 분기의 문제뿐 아니라 음소배열에서의 변화라든지 교체에서의 변화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표시층위(level of representation)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표시층위와 관련한 우리의 논의를 전개하기 이전에 'β > w' 라는 변화의 공식을 좀더 정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빙' 라고 하는 무척이나 단명이었던 이 문자의 참 모습을 확인하기엔 사실 한정된 자료 탓에 어느 정도 논리적 추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김완진(1974)에서는 음운변화와 음운의 분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일찍이 주장한 바가 있다. 즉 음운이 놓인 위치에 따라 변화의 속도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음운의 위치는 형태소의 구조를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순경음의 경우 어간 형태소 내부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형태소 경계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러한 형태론적 범주를 고려하여 β의 출현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해 보았다.

《형태소 내부》

드뵈(훈언, 용자례)

스ㄴ볼(용35)

셔뵈 使者(용18), 셔뵈 寄벼를(용35)

사뵈(훈언, 용자례)

흐뵈사 (용35)

지뵈(능엄5:72, 몽산10), 지뵈골(용1:49)

드뵈니이다(용98), 疑心드뵈니(월석1:15) < 드뵈- >

이뵈 나모(용89), 이뵈 남기(용84) < 이뵈- >

혀를 비뵈트니(몽산31) < 비뵈- >

비호디뵈(월석10:20), 니디뵈(월석14:80) < -디뵈 >

疑心드뵈니(월석1:15), 조수르뵈니(석6:37) < -드뵈/르뵈- >

《형태소 경계》

- 어등-: 어드본(용30), 어드볼(월석서3)
- 갓갑-: 갓가볼(월석서14), 갓가보매(월석서14), 갓가비(월석2:5)
- 등-: 도북실씨(용34), 도볼씨니(월석1:32), 도북시니이다(용96), 도바(월석 21:36), 도보미(몽산9)
- 늘-: 누본(용84), 누보며(월석1:17), 누보샤매(월석2:26)
- 덜-: 더본(월석1:18), 더봄(월석7:53), 더뵤(석9:9)
- 엷-: 열본(용30), 열보니(훈언), 열볼씨라(월석21:198)
- 설-: 설본(석19:15), 설보시며(월석8:81), 설볼씨라(월석서10), 설버(월석서 10), 설버이다(월석2:52)
- 곧-: 곧북며(월석1:26), 곧북리(월석21:222), 곧바(훈언)
- 숯-: 숯북니(용22), 숯북리(용13), 숯보디(월석서5), 숯보리니(월석1:1), 숯바시놀(월석2:23)
- 가비얏-: 가비야본(훈언), 가비야비(목9)
- 더렵-: 더러본(월곡69), 더러부름(월석1:35), 더러벧거든(월석13:21), 더러뷰름(월석2:55), 더러비디(월석9:21)
- 므겁-: 므거버(월곡142), 므거본돌(몽산2)
- 보드랍-: 보드라북며(월석2:42), 보드라바(석13:40), 보드라비(석13:51)
- 쉬-: 쉬볼씨라(훈언), 쉬보니(몽산26), 쉬비(월석13:12), cf. 수비(훈언)
- 아름답-: 아름다볼씨니(석13:9), 아름다비(월석17:93)
- 앗갑-: 앓가본(석6:25), 앓가볼씨(월석17:34)
- 어렵-: 어려보료(석11:20), 어려볼씨(월석1:13), 어려비(목44)
- 어즈렵-: 어즈러버(삼강효24), 어즈러봄(월석7:43), 어즈러비(월석7:27)
- 즐겁-: 즐거버사(월석2:5), 즐거부미(석11:2)
- 칩- : 치보려니와(삼강효1), 치버(월석9:23), 치봄(월석7:53), 치뵤(석 9:9)

호수보니(월석서13), 문즈바(석13:21), 저씨북니(용62) < -술/줍/술- >
 ㄹ리북며(월석18:39), 운보니(월곡176), 운비(월곡179) < -북/보- >

《합성어의 경우》

- | | |
|------------|----------------|
| 대법(용87) | 대반(용5:26) |
| 글밭(용26) | 말밭(월석21:80) |
| 쇠벼룩(용3:13) | ㄹ벼비(월석1:36) |
| 매밭고(석9:29) | 니르바들씨라(월석1:16) |

이상의 예들이 훈민정음의 초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순경음 용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지금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 따른 순경음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예들의 유형을 이상과 같이 제시하여 그 의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2.2 순경음 ‘빙’을 가지고 있던 어형들은 불과 몇 십년 사이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바로 그 변화의 공식이 국어 음운사의 한 획을 그은 ‘ $\beta > w$ ’인 것이다. 다음이 바로 이 공식에 근거한 순경음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예들이다. 널리 알려진 예들이나 앞으로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① 바, 버 > 와, 워

어드버 > 어드워, 설버 > 설워
 갓가바 > 갓가와, 골바 > 골와
 것바시 > 것와시~것워시
 말밤 > 말왁, 글밭 > 글왁 > 글월
 매밭 - > 매왓-, 니르밭- > 니르왁-

② 북, 부 > 오 / 보, 부 > 우

갓가부니 > 갓가오니, 골부니 > 골오니
 도보물 > 도오물, 솔보리니 > 솔오리니
 어드보면 > 어드우면, 쉬볼씨라 > 쉬울씨라, 설본 > 설운
 즐거부미 > 즐거우미, 어즈러불 > 어즈러움, 열부물 > 열우물

위의 ①②의 예들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 $\beta > w$ ’의 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특히 ①은 w계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바 > 와, 버 > 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로 $\beta > w$ 의 공식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②의 경우는 재음운화라고 하는 모음체계 전반과 관련되는 개념이 개입하고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beta > w$ 라고 하는 공식 자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완진(1972:53)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 부’가 ‘오, 우’로 변화하는 것도 역시 $\beta > w$ 를 겪되 후행하는 모음이 원순모음인 까닭에 그 원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현

대국어에서도 후설의 원순모음들과는 w 계 이중모음을 형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보, 부’가 ‘오, 우’로 변화한다는 사실이 $\beta \rangle w$ 의 공식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¹⁾

②의 ‘ $\beta \rangle 오$ ’와 ‘ $\beta \rangle 우$ ’의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재음운화의 문제가 개입되어 문제의 양상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 $\beta \rangle w$ ’의 공식에 의한다면 ‘ $w + \text{ㅇ}$ ’와 ‘ $w + \text{으}$ ’는 재음운화 과정을 통해 ‘오, 우’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재음운화의 과정에 대한 체계내적 증거를 포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우선 우리의 고민을 만들어 낸다. 광충구(1994: 285~6)에서는 그 내적 증거로서 원순모음화를 들고 있다. 통시적으로 원순모음화나 비원순모음화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살펴 보면 원순성에 근거한 ‘ $\text{ㅇ} : \text{오}$, $\text{으} : \text{우}$ ’의 대립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 본다면 중세국어의 모음체계가 다섯 개의 평순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게 해주므로 재음운화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재음운화라고 하는 과정은 ‘ $\text{ㅇ}, \text{오}$ ’ 그리고 ‘ $\text{으}, \text{우}$ ’의 변별이 오로지 원순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조음위치는 동일해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 모음은 중세국어 시기에 공식적으로 재음운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 $\text{으} \rangle \text{오}$ ’ 원순모음화라든가 ‘ $\text{오} \rangle \text{으}$ ’ 비원순모음화, 그리고 19세기의 ‘ $\text{오} \rangle \text{어}$ ’ 비원순모음화를 생각해 보면 조음위치가 동일하지 않아도 원순성 자질의 동화와 이화 과정이 가능했으므로 재음운화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머뭇거리게 한다. 특히 국어의 기본 모음체계에서 원순모음을 모두 제거한다면 현대국어에서도 형태음운표시층위에서 ‘.’를 설정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beta \rangle w$ 라고 하는 음운변화의 공식을 손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상의 문제들은 오히려 이 음운변화의 기술의

1) 김완진(1974:111)에서는 ‘ $\beta \rangle (w) \phi$ ’의 경우는 병 다음에 ‘이’모음이 오거나 그 앞의 모음이 원순모음일 경우(*수울>수울)뿐이라고 보았다. 최전승(1975:40)에서는 일종의 이화규칙으로서 원순모음 앞에서의 원순성 탈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2) 김완진(1978)에서 제시하는 모음체계를 참조하였다.

정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좀더 문제거리를 지니고 있는 부사화접미사나 피사동접미사가 연결된 경우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이들 예들은 문면으로는 전혀 순경음 ‘빙’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도록 변화한다. 다음의 예들을 기억해 보자.

③ 비 > 이

갓가비 > 갓가이, 뇨가비 > 뇨가이,

수비 > 수이 > 쉬, 쉬비 > 쉬이, 띠비 > 띠이 > 띠이

두려비 > 두려이, 거여비 > 거여이, 가뵤야비 > 가뵤야이

조속르비 > 조사르이, 부드러비 > 부드러이, 즈올아비 > 즈올아이

④ 비 > 이

*누비- > 누이-(월석18:39)~뉘이-(법화6:154)

더러비-(월석8:97) > 더러이-(능엄1:26)~더레-(법화6:57)~더레이-

*어드비- > 어두이-(능엄4:118)

*불비- > 불이-(구급방하29)

③은 부사화접미사가 연결된 경우로 ①②의 경우와는 달리 순경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순성이 아예 탈락해 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피사동접미사가 연결된 ④의 경우에도 부사화접미사와 마찬가지로 순경음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늑-’의 경우 그 사동형은 순경음이 탈락한 ‘누이-’에서 더 나아가 ‘뉘’를 형성하고 마치 그 축약형을 단일어간처럼 활용시켜 ‘뉘이-’로 실현하고 있다. ‘더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러이-’의 축약형인 ‘더레-’의 경우는 그 활용 양상이 ‘더레여, 더레요물, 더레요니, 더레음, 더레유미’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축약형인 ‘더레-’가 나타나는 것인지 ‘뉘이-’와 평행적으로 ‘더레이-’가 실현되는 것인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어두이-’의 경우는 후행하는 순경음에 의해 선행하는 평순모음 ‘으’가 역행적으로 원순모음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불이-’의 경우는 피동접미사가 연결된 경우인데 역시 ‘늑-’의 어간말음인 순경음의 원순성은 그 흔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예들이야말로 $\beta > w$ 의 공식을 설정하는 데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 왔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김완진(1964: 56~7)에서는 ‘아, 어, 으, 으’ 앞에서는 ‘ $\beta > w$ ’가 적용되고 ‘이’ 앞에서는 ‘ $\beta > u$ (오) 또는 \ddot{u} (우)’가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부사화접미사 ‘-이’ 앞에서는 ‘ $\beta > \phi$ ’가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김완진(1972:53)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음운변화의 양상을 다시 ‘ $\beta > w$ ’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전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그의 입장 선회가 기본적으로 옳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것은 $\beta > w$ 라는 통시적인 음운변화는 분명 변화가 완결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론적 공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변화의 과정에서 한 공시태의 단면을 잘라 본다면 그것은 과도기적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β 가 완전히 w 로 합류한 뒤에 우리는 그 과정을 $\beta > w$ 로 기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였을 것이라는 것이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고가 생각하는 음운변화의 모습인 것이다.

생성음운론자들은 새로운 규칙의 첨가를 통해 음운변화를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다분히 급진적인 변화를 상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즉 하나의 규칙이 음운체계에 새로이 등장하면 그 규칙의 환경에 해당하는 모든 음운들은 모두 입력되어 동시에 출력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β 가 어떤 환경에서 일시에 w 로 변화한다고 본다면 위의 ③④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외처럼 기술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말 것이다. 그러나 김완진(1974)의 논의대로 음운변화는 그 음운의 분포라든지 화자의 개인적인 발화 습관의 차이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 음운의 변이 영역 내에서 어느 정도는 임의적인 변이형들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순경음의 변화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술해 보려는 것이다. 즉 거시적으로 $\beta > w$ 의 공식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미시적으로 이 결과론적 공식에 이르기까지의 변이과정을 인정하고 정밀하게 들여다 보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음운변화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음운변화는 공시적 음운과정에 대하여 통시적 음운과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통시적 음운과정은 전통적으로 ‘음변화(sound change)’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음변

화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음성적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발음의 편의를 위하여 음이나 음연쇄의 대치를 일으키는 음성적 과정(phonetic processes)을 언급하는 음변화 개념과, 언어의 역사의 어느 한 시점과 다른 시점 사이의 한 음의 변화를 다루는 음성적 대응(phonetic correspondences)을 의미하는 음변화의 개념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음성적 대응은 음운대응일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음운대응은 하나의 분절음에 계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여러 음성적 과정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음성적 과정은 공시적인 것이지만 그 결과는 통시적인 음운대응이라는 것이다.³⁾

따라서 소실 직전의 β 가 w로 변화하기 전, 다시 말해 $\beta \rangle w$ 라는 음운대응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음성적 과정의 모습은 그 당시의 공시적인 모습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공시적 음성 실현의 과정이 통시적으로 순경음의 소실이라는 변화를 이끄는 것이며 따라서 w라는 최종적인 변화의 결과에 이르기 전의 다양한 변이의 양상을 잠정적으로 우리는 가정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음운의 수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변화로서의 음운변화는 순경음이 소실되고 음운론적으로 w로 합류되었을 때 완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본고의 논의는 ' $\beta \rangle \dots \rangle w$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두 음운의 대응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공시적인 음성적 변이과정을 통해 음운변화의 점진성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김완진(1972:54)에서도 이상의 논의와 비슷한 견해가 이미 보이고 있다. 즉 음운변화의 테두리 안에서는 ' $\beta \rangle w$ '로서 순경음의 변화공식을 따

3) Jeffors & Lehiste(1979:1~2) 참조.

Anttila(1972: 57~8)에 의하면 음변화는 대개의 논의에서 두 가지로 구별되어 왔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음운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발음상의 변이로서의 음성적 변화(phonetic change)이고, 두 번째는 음운의 수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로서의 음운변화(phonological change)이다. 즉 음변화는 단순히 음성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변별적 자질과 대립의 개념을 통해 음운체계를 상징하고 음운론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음성적 변화는 음운론적 재구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은 분명하다.

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β 에 후행하는 모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상이한 음성적 과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미 앞서 이야기 했던 ‘ㅃ > 오, ㅍ > 우’의 문제를 재음소화에 의한 것이라고 봄으로써 ‘ㅃ > 와, ㅍ > 워’의 경우와 동일한 범주로 처리하였고 ‘-디비’의 경우는 공시적인 음운체계에 ‘wi’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wi → wəy’와 같은 모음삽입을 통해 음성표면에서 실현 가능한 /üy/ (혹은 /uy/)를 실현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실 ‘ㅍ > 워’의 경우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디비’ 외에는 ‘치비, 더비’의 경우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두 단어는 ‘치뵤, 더뵤’로 문면에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그리고 부사화접미사 ‘-이’가 연결된 경우에는 이 접미사가 형태음소론적으로 //yi//라고 봄으로써 ‘ $\beta > w$ ’에 의해 ‘wyi’라는 무리한 음소배열이 생기자 그 원순성의 징표인 w를 제거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⁴⁾

2.4 이상의 김완진(1972)의 논의에서는 $\beta > w$ 가 음운변화의 공식이라면 ‘비’라는 음운 연결에 대해 적용되는 모음 삽입이나 활음 탈락과 같은 과정은 일정시기의 음운 연결의 규칙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의 논의는 어떻게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장 큰 차이점은 $\beta > w$ 라는 공식이 완결되기 이전에 ‘ $\beta + i$ ’라는 음운 연쇄는 w의 변이음으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김완진(1972)의 논의가 통시적인 변화가 완결된 이후 음운 연쇄에 대해 상이한 공시적 결합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본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본고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진 것은 ‘비’라는 음운 연쇄가 어째서 ‘워’와 ‘이’라는 서로 다른 발달을 보이게 되었나 하는 점이었다. 아주 소박한 생각의 출발은 그 원인이 순경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모음의 자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즉 ③④의 변화와는 달리 ‘비

4) 김완진(1972: 57~8)에서는 부사화접미사를 ‘yi’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이 접미사가 연결되는 경우, 어간말음 ‘으, 으’가 탈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나 어간말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이외에도 명사화접미사 ‘-의/의’, 동명사어미 ‘-음/음’, 부동사어미 ‘-아/어’의 경우에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된다. 반면 ‘비’의 변화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는 피사동접미사의 경우는 ‘쓰이-, 쓰이-’에서와 같이 어간모음을 탈락시키지 않고 있어 흥미롭다.

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디비, 치비, 더비'의 예들은 순경음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갓가비, 더러비-'의 경우와 동일한 음운의 연쇄일지라도, 일단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 변화의 속도나 양상은 음운론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음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이의 폭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극소수의 예들이기는 하나 순경음의 원순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디비, 치비, 더비'의 경우부터 그 변화 과정을 논리적으로 추적해 보도록 하자. '디비~디위~디외~디웨'의 현대국어 계승형은 '-지'인데, 이것은 비록 문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순성이 아예 사라진 '*-디이'를 설정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사비'와 같은 경우는 능엄경에 '사이'라는 계승형이 보이고 있지만 16세기 자료인 번역박통사나 훈몽자회에 나타나는 '새요'와 현대국어의 '새우'를 염두에 둔다면 역시 문중할 수는 없지만 '*사외'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⁵⁾ 김완진(1974:117)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중세국어에서 음성 표면에서 실현될 수 없었던 'wi'에 대해, 접미사나 어미류는 w를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반면 어간 내부의 경우는 모음을 삽입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다. 결국 '-디비'의 변화에 있어 어느 정도 변이의 폭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확대 해석을 해 본다면 '비'라고 하는 음절의 변화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이의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치비, 더비'의 경우, 이들이 '치위, 더위'로 발달하였다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석보상절의 '치뷔, 더뷔'의 예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치비, 더비'의 어형들은 용언어간에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파생명사를 만드는 '-이'가 연결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문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⁶⁾ 오히려 '찰-, 털-'은

5) 정승철(1994:103)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새위'가 '사위() *사외)'에서의 발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6) 이승녕(1954/1988:39) 참조. 이기문(1979:34/주16)에 의하면 순경음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형용사 어간에 명사화접미사 '-이'가 연결된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다.

형용사 어간이므로 형용사 어간에 붙어 파생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외/의'가 결합한 경우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껏 '치위, 더위'의 당연한 선행 형태로 여겨졌던 '치비, 더비'의 경우가 오히려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본고에서는 '치비, 더비'가 문면의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실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하나는 명사파생 접미사 '-이'가 상대적으로 무척 생산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외/의'를 잠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다. 실제로 형용사 '길-'의 경우에는 그 파생명사형이 '기뢰'로도 나타나지만 '기리'로도 나타나는 때문이다.⁷⁾ 두번째 가능성은 두 어형 '치비'와 '치뷔'가 거의 유사한 음가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비'는 표기와는 달리 원순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이들이 다른 대부분의 '비'와는 달리 '위'라는 계승형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 + -의'의 분석이 타당한 것이라면 의당 '치뷔'라는 어형이 나와야 하는데 '뷔'라는 음절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뷔'라고 하는 음절은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순행 원순모음화를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무렵에 순행의 원순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7세기의 순행적인 원순모음화가 출현하기 이전인 15, 6세기에는 생산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행적인 원순모음화만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동화주인 원순자음이 후행하는 것이다.⁸⁾

7)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용사 어간에 '-이'가 결합하면 파생부사의 쓰임을 보인다.

8) 역행 원순모음화의 예를 참고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름(용42)~구름(두중1:50), 님굼(변소9:47/두중11:37)~님굼(용33),

사름(삼강重충21/정속중16)~사름(월곡143), 말숨(변소9:11)~말숨(두초15:41),

어둡고(농업2:28)~어드본(용30), 둡고(두창상8)~둡고(법화6:154)~뫼게(두중5:5),

주습츠디(두초23:52)~주습처(두초25:19)~즈습츠도다(두초21:25)~즈습(두초8:3)~주웁(두중3:62)~즈웁(두중1:12)

결국 ‘뷔’라는 음절의 표기는 문자 창제의 초기라는 점에서, 게다가 순경음의 소실이 시작된 시기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병라는 문자와 관련된 표기에서 음운론적 총위와 음성적 총위의 구별이 표기자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다소 모호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보고 싶다. 본고의 생각은 ‘뷔’가 음성적 실현을 표기에 우연히 반영하게 된 경우라고 보고 싶다는 것이다. 표기가 음운표시 총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기를 통해 어간의 재구조화까지 보여주는 음운 변화로서의 원순모음화는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것이지만 중세국어에서도 음성적 총위의 변이형으로서 순행의 원순모음화를 겪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뷔’는 특히 $\beta > w$ 와 더불어 그 원순성이 표기에 분명히 나타난 경우가 아닌가 한다.

이상의 논의를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치비, 더비’의 경우 ‘비’가 ‘위’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오히려 그 파생접미사를 생각한다면 문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치뵤, *더뵤’를 상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엄밀하게 ‘위’의 선행 형태는 ‘비’가 아니라 ‘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뵤 > 위’의 과정을 겪은 것이라면 ‘뵤 > 우’와 평행적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뵤 > 외’와도 짝이 되므로, $\beta > w$ 의 공식은 이들 어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좀더 복잡하고 예외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디비’의 경우를 보자. 이 어미는 ‘-디뵤, -디뵤’와 같은 형태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 계승형들이 ‘-디위/디외/디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척 다양하다는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표기의 출몰이 중세국어 이중모음 체계에서 ‘wi’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치비, 더비’의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본다면 ‘-디비’의 경우도 ‘디위’ 등이 직접 계승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즉 그 존재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논리적으로 *‘-디뵤’가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디비’의 발달은 *‘-디이’에 이어져 ‘-지’에 이르는 것이고 ‘-디위/디외/디웨’는 문증되고 있지 않은 *‘-디뵤(혹은 *‘-디뵤)’의 발달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고의 생각인 것이다. 물론 ‘-디위/디외/디웨’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1

음절의 모음 'i'가 모음조화에 대해 중성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뵤 > 위'의 발달에 대해서는 그 예들의 회소성으로 인하여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승철(1994:104)에서는 '누위'를 육진방언 '느뵤'와의 비교를 통해 '누뵤'가 아닌 '*누뵤'로 재구하고 있고, 이승녕(1954/1988:38)에서는 '드뵤'에 대하여 '드뵤 > 드위 > 뒤'와 같은 발달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본고의 논의에 다소나마 힘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뵤'의 발달과 관련해 보았을 때 오히려 예외적이라 할 수 있었던 몇 예들의 구제를 통해 '뵤'는 예외 없이 순경음이 사라지고 '이'로 실현된다는 일반화를 포착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단 '뵤 > 이'의 발달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차치하고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위'의 전신이 '뵤'라는 중요한 추정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다음과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beta iy(\sim \beta u y) \rangle uy \rangle \ddot{u} \rangle wi$

이상의 공식은 순경음이 후행하는 모음과 점진적인 결합적 발달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인 것이다. 사실 본고의 처지에서 β 가 w로 완전히 변화한, 다시 말해 β 가 이상의 음성적 과정을 거쳐 정확히 언제 w에 대응하게 되었는지 그 시기를 말해 줄 형편은 못 된다.⁹⁾ 그러나 우리는 이상의 음성적 과정이 결과적으로 $\beta \rangle w$ 라는 음운대응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5 다음은 부사화접미사나 피사동접미사가 결합한 '뵤 > 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이 경우의 순경음 발달에 대해서 순수히 음운론적 측면에서 다뤄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이승녕(1954)에서는 이들이 원순성을 배제한 발달을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 유추에 의한 구조적 압력 내지는 일종

9) 중세국어 시기에 이중모음 'wi'가 존재했었는지의 여부는 이 이중모음이 실재하는 표시층위가 어디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음운표시 층위에서는 'uy'로 인해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음성표시 층위에서는 'uy'의 변이형으로 'wi'가 실재했을 것으로 본고는 믿고 있다.

의 형태론적 제약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⁰⁾ 또 김완진(1972)에서는 형태론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 $\beta > \phi$ '의 공식을 극복하기 위해 부사화접미사의 기저형을 수정하게 된다. 즉 부사화접미사 '이'는 형태음소론적 차원에서는 순정의 'i'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사화접미사의 기저형 내지는 형태음운표시¹¹⁾는 // -ji(혹은 yi) //로서 ' $\beta > w$ '의 결과로 'wji(wyi)'와 같은 무리한 음운결합을 강요 받았을 때 w를 탈락시킨 것이라고 보았다.¹²⁾

사실 이들 접미사에서 원순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 접근하는 대부분의 관점은 형태론적 범주 제약을 근간에 깔고 있었던 것이고 김완진(1972)의 논의는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에 따라 상당히 추상음운론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본고는 부사화접미사와 피사동접미사의 경우도 음운론적으로 구체되어 ' $\beta > w$ '의 공식에 합류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 그 음운론적 구체를 위해 '비'의 음성적 변이의 모습을 추측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미 2.4에서 '뵤 > 위'의 발달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으므로 이제 여기서는 왜 '뵤 > 이'가 되는지에만 논지를 맞추면 될 것이다. 사실 '비'라고 하는 음절, 즉 ' βi '는 당연히 'wi'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본고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뵤 > 위'의 경우는 음운론적으로 'uy'로 판정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당연히 이 이중모음의 문자를 배당받을 수 있었지만 '뵤 > 이'의 경우는 그 당시의 표기자를 곤혹스럽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10) 최전승(1975: 43~46)에서도 부사화접미사와 결합할 때에 원순성이 사라지는 것을 유추에 의한 구조적 압력 내지는 일종의 형태론적 제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업시비"의 경우 恩重經諺解에 '업시위'라는 어형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디뵤 > -디위'의 경우와 함께 ' $\beta i > wi$ '를 보여주는 경우로 순경음 앞에 'i'모음이 온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들이 패러다임의 압력을 무시하고 '위'로 실현된 것은 동일모음 축약에 의하여 형태소의 기능이 손상받는 것을 저지하려는 기능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1) 기저형과 형태음운표시는 지금의 논의에서는 일견 비슷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2) 정승철(1994: 102/주163)에 의하면 현평효(1962)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여기, 제에기'를 '지뵤 > 지역'의 후예로 보고 활음y 앞에서 순경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보았다. 최전승(1975: 43)에서는 일종의 이화로써 활음의 탈락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다.

여기서 잠깐 흔히 원순 반모음 내지는 활음이라고 불리는 'w'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w'는 원래 후설 고모음 'u'가 그 성질성을 잃어 실현되는 반모음이므로 'u'와 마찬가지로 [+high], [+back]의 자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w'의 [+round]라는 자질 특성만이 부각되어 왔으나 이제 우리는 'w'의 다른 자질 특성인 [+high], [+back]과 관련하여 이 문제의 반모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사실 이 반모음은 연구개 반모음으로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β 와 w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엄밀한 의미에서 β 가 w에게 넘겨준 것은 지속성과 원순성이라고 할 수 있다.¹³⁾ 그리고 기존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원순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원순 반모음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이 음운이 연구개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국어에서 w상향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원순 반모음계는 평순의 경구개 반모음계와는 달리 음성적 층위에서 조음위치의 동화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도 음운표시 층위에서는 원순의 연구개 반모음인 /w/만이 설정되어 있지만 음성표시 층위에서는 /w/의 변이형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즉 'w'는 전설모음 'i, e, ε' 앞에서는 전설의 원순 반모음 'ü (ϕ), ö'로 전설음화하고 또 중모음

13) $\beta > w$ 의 변화는 단순히 순경음의 소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음의 약화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기술일 것이다. 사실 자음이 약화되는 첫 단계는 모음 사이에서 실현되는 무성자음의 유성음화이다. 이 과정은 동화로 볼 수도 있으나 일종의 약화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성대의 유성 상태를 무성의 상태로 바꾸지 않고 연속적인 유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조음을 보다 쉽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엄연한 약화의 과정인 것이다. 다음 단계는 구강 내에서의 접촉을 줄이는 일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유성의 폐쇄음은 마찰음에서 활음으로까지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약화는 그 궁극의 단계에서는 음의 소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보편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며 우리의 순경음도 그와 같은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소실이 과도적 약화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약화계층에 대한 논의는 Hock(1986: 82~6)을 참고해 볼 만하다. 또 Hooper(1976: 224/주8)에서도 양순음의 약화와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펴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e, ε’와 저모음 ‘a’ 앞에서는 각각 ‘ō’와 ‘o’로 중모음화한다. 결국 음운 /w/는 이상의 이음과정을 통해 표면 음성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엄격히 따져 보면 음성표시 층위에서 [w]로 실현되는 경우는 ‘ə, ʌ’ 앞에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w/의 전설음화이다. 그것은 우리의 부사화접미사나 피사동접미사가 별종의 변화를 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에서도 전설모음 계열 앞에서 이 문제의 활음이 경구개 쪽으로 위치 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비’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전설의 고모음, 즉 바로 경구개 모음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회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결론부터 말한다면 중세국어 그것도 순경음의 소실기에 ‘βi’는 ‘wi’가 아니라 ‘ɸi’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세국어 이중모음 체계에 ‘wi’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므로(최소한 음운론적으로는), ‘βi’가 ‘wi’로 변화하였다가 공시적 이음과정인 위치동화를 통해 ‘ɸi’가 된 것이 아니라 직접 ‘βi’가 ‘ɸi’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음운표시 층위가 화자나 청자의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표기는 음운론적 인식을 거의 반영하고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데, 2.4에서 살펴보았듯이 ‘위’는 ‘uy’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당시의 표기자들도 이 ‘ɸi’라는 이중모음에 어느 정도는 곤혹스러워 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이 이중모음은 전설모음 ‘i’에 원순성을 가미한 정도이므로 일상적인 발화에서 반모음 ‘ɸ’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었다고 본다면 설사 당시의 표기자들이 이 이중모음을 인식할 수는 있었다 해도 문자로서 표기할 방도는 ‘이’ 뿐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본고의 생각인 것이다.

현대국어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미 앞에서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이음과정으로서의 ‘w’의 위치동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는 ‘wi’의 경우에도 선행자음에 따라 음성적 변이음인 ‘ɸ’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선행자음이 치조음이나 경구개음일 경우 특히 후행하는 ‘wi’는 자연스럽게 전설 쪽으로 이동하여 원순의 경구개 반모음을 가진 이중모음 [ɸi]로 실현되는 것이다. 상대

적으로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라든지 양순 자음이나 연구개 자음이 선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분명하게 이중모음 'wi'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w'가 원순 반모음이면서 동시에 연구개 반모음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IPA 기호에서도 'w'를 'voiced labial-velar approximant'로 'ɸ'는 'voiced labial-palatal approximant'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¹⁴⁾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러한 변이음의 실현이 음운론적 층위의 이중모음 /wi/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음운표시 층위라고 하는 것은 발음가능 단위이면서 동시에 인식가능 단위여야 하기 때문에 화자나 청자가 무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w'의 변이음들은 음성표시 층위에서만 존재할 뿐인 것이다.

현대국어의 경우는 중세국어의 경우와 다소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음성표시 층위에서 [w]~[ɸ]와의 교체가 가능하였다는 사실에서는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본고가 검토하고 있는 ' $\beta \rangle w$ '의 경우는 이중모음 'wi'가 그 당시에 음운체계상 빈칸이었다고 보므로 [ɸ]는 모음i앞에서만 출현하는 결합변이음이었다면 반면 현대국어에서의 [ɸ]는 /w/의 임의변이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대국어의 예들을 논하면서도 'wyi'라는 음운 연쇄에 대한 해결책으로 활음 'w'를 탈락시킨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고는 이러한 음운의 연쇄라든지 또 'w'의 탈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인공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인호(1995:62)에서는 화순지역어를 다루면서 '몰라서~몰라서'의 경우와 같은 삼중모음 예를 설명하기 위해 활음y와 모음 사이에서 활음w가 탈락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또 표준어에서도 '뛰어, 쥐어'의 경우를 't'wi- + -ə → t'wyə'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아 y앞에서 w가 탈락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14) '접근음(approximant)'은 한 '조음자(articulator)'가 다른 조음자에 접근해 가되, 접근의 정도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친 소리를 생성해 내지 않을 만큼만 접근하는 소리를 일컫는다. 이러한 조음자 사이의 접근 방식보다는 거친 소리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를 '마찰이 없는 지속음(frictionless continuant)'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반면에 일정한 음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가를 지향하여 변해가는 음가를 가진 음이라는 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과도음, 전이음, 활음(glide)'이라고 부른다.

'w'의 탈락이 음성적으로 동기 부여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활용형들은 사실 음성적으로 ['fɿθ:], [çɿθ:]와 같은 활음화를 수의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실현형은 전설의 원순 단모음/ü/가 직접 변화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중모음/wi/의 w가 i의 전설성에 이끌려 [ɿ]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소 이야기가 빗나간 감이 없지 않지만, 다시 우리의 $\beta > w$ 로 돌아가 '비 > 이'의 발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결국 본고의 논의도 부사화접미사나 피사동접미사의 '이'가 순정의 'i'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김완진(1972)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형태론적인 범주 제약이나 기저형의 추상성을 배제하고 음운대응 이전의 점진적인 음성적 과정을 인정함으로써 이들 접미사에서 나타나는 순경음의 완전한 증발을 음운론의 범위 내에서 해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음과 같은 변화의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beta i > \text{ɿ} i > wi$

그러나 이중모음 'ɿi'를 가지고 있던(다시 말해 병의 소실 이후 그 계승형으로의 '이'를 가지고 있던) 어형들은 파생형의 속성과 문자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대부분 순정의 'i'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를 거쳐 현대국어에 이르면서 이중모음 'wi'가 음운론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결국 이상과 같은 음성적 과정을 통해 ' $\beta i > wi$ '과 같은 대응을 보여주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III

3.1 본고는 이상의 논의에서 순경음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미시적인 고찰을 한 셈이 되었다. 이제 이번 장에서는 $\beta > w$ 라는 음운 변화의 공식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II장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본고는 무엇보다 공시적인 음성적 과정과 통시적인 음운대응의 개념을 구분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beta > w$ 라고 하는 공식이 음운표시 층위에서 일어난 변화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도 하다.

' $\beta i y (\sim \beta u y) > u y > \ddot{u} > w i$ '나 ' $\beta i > \psi i > w i$ '와 같은 변화의 과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성적 과정이다. 따라서 공시태가 지니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 내지는 이질적 본질을 보여주는 변이과정이다. 이러한 변이과정은 음변화의 근본적인 원인(cause)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동기(motivation)는 제시해 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공시태와 통시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현대언어학에서 공시태와 통시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적인 공시태'란 허구적인 것이어서 단지 그것은 이론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Jakobson(1929: 19~20)에 의하면 언어의 공시적 상태에는 음성, 음운, 형태 등 문법의 여러 층위에 변이(variation)가 존재하며, 동시에 그것은 체계의 불안정을 조장하여 체계적 변화를 일으키는 항구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Martinet(1975: 5~10)에서는 이러한 공시태의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적 공시태(synchronique dynamiqu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공시태는 기본적으로 여러 유형과 종류의 변이를 포함한 이질적 체계의 총체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Saussure의 랑그 개념을 기술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구조주의자들이나 이상적 화자와 청자를 가정하는 Chomsky(1965:3)의 언어 분석도 기본적으로 공시태의 '동질성'을 논의의 저변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동질성에 대한 회의는 Labov를 중심으로 한 사회언어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공시태의 '이질성'을 검토하게끔 해서 그 속에서 오히려 또 다른 질서를 발견하여 언어변화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게 하였다.

사실 생성음운론의 논의에서 공시태와 통시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표면형의 도출과정은 순수하게 공시적인 것이지만 설정된 기저형이 과거의 형태와 유사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적용된 규칙의 순서가 역사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생성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규칙의 첨가를 통해 개신적인 음운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시적 규칙의 집합은 역사적 규칙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공시적인 규칙을 통시적인 발달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논의가 생성음운론자들 내부에서 규칙 재배열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시적 음운과정과 통시적 음운과정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냈다는 사실일 것이다. 15)

결국 본고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통·공시태의 유기적 관련성과 공시태의 이질적 속성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논의는 변이과정을 통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공시적 음운과정과 통시적 음운과정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통시태와 공시태의 극단적인 양분이 무의미함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공시적 음운과정이 갖는 이질성(heterogeneity)과 통시적 음운과정이 갖는 점진성(gradualness)은 변이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16)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순경음의 변화는 그 형태론적 결합관계나 음소배열 등에 따라 $\beta > w$ 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속도나 변이의 양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시태의 한 단면을 잘라 보았을 때 화자에 따라서건 아니면 한 화자에 있어서건 이질적이고 동적인 변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으리라 추측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beta > w$ 의 논의는 음운변화의 점진성과 또 공시적인 이질성을 잘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 Schane(1973: 83, 91~2) 참조.

16) 변이과정은 정확한 조음을 위한 조음기관의 동작이 유지되지 않아서 분절음에 대한 개별적인 통제가 완화되므로 당연히 동시 조음(coarticulation)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개별 분절음의 변별성은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수의적인 변이과정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Lass 1984:298, 참조)

- ① 동화의 가능성이 늘어나 이웃한 분절음들 간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된다.
- ② 경계 요소를 무시하게 됨으로써 음성적 연결체를 단어 정도의 크기(word-size chunks)로 재조직하여 단일한 음운론적 단어로 취급될 수 있는 통사적 단위(group)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이 통사적 단위는 형태음운표시로의 분석을 고려해 보면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 ③ 협착의 개방을 통해 약화를 증가시킨다.
- ④ 모음을 짧게 발음하거나 centralization과 같은 모음의 축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극단적으로 모음이 탈락하여 자음이 성절성을 갖게 되기도 한다.
- ⑤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나타난다.
- ⑥ 자음군의 축약이 나타난다.

Bloomfield(1933:328)는 이미 소장문법학파의 규칙성 가설 자체와 단어의 개별적 역사를 인정하는 입장을 모두 포괄하여 두 가지 견해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간파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인식은 어휘적 점진성과 음성적 점진성을 통해 음운변화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우리는 β 의 변화가 어휘 부류에 따라 그 변이의 유형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일찍이 김완진(1974)에서 지적한 대로 변화하는 단어 내에서의 음운의 분포에 따라서도 그 변화 속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휘적 점진성(lexical gradualness)과 더불어 우리는 여기에서 음운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음성적 점진성(variable phonetic gradualness)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Lass(1984: 332~5)에서는 음성적 점진성이 음역에서 한계가 없는 것(infinite graduality)으로 파악하는 것은 음변화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공시적으로 변이형들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한 음역을 조사하여 음변이나 음변화가 가능한 영역(quanta)의 크기를 알아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공시적으로 가능한 음역만큼을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은 곧 통시적인 음변화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즉 우리가 'A > Z' (우리의 ' $\beta > w$ ')라고 하는 음운대응을 얻었을 때 그 사이에는 'A → B, B → C, C → D, D → E ……'와 같은 중간단계로써의 변이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A → B'라고 하는 과정의 표시도 엄밀하게 보면 빈도수의 문제로 이것은 B의 빈도수의 증가와 A의 빈도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해본다면 $\beta > w$ 는 음성적 과정의 결과로 얻어지는 음운대응의 공식이므로 의당 음운표시 층위에서 일어난 음운변화임은 확실하다. 또 한 음운의 소실과 이중모음 체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공식이므로 음운론적 재구조화에 이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본 논의의 끝을 맺기 전에 $\beta > w$ 라는 음운변화의 공식이 내포하고 있는 작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줄고(1991:122)에서는 '글알, 설워, 설워, 슬오리샷다, 동오-, 움우-, 울오-, 활와치, 설이, 불이-' 등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beta > w$ 이후 선행음절말음이 후행음절의 초성으

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였다. 그리고 선행하는 음절말 자음이 종성의 위치를 지키게 하는 것이 반모음 w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이 예들이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유성후두마찰음 [ɸ]의 출현환경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순경음 '빙'의 약화의 다음 단계가 '어떤 자음 + w'의 구성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국어에서는 물론 중세국어에서도 반모음 w, y 앞에 자음을 선행시킬 수 없다는 음소배열상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순경음의 변화 공식을 제안한 바가 있다.

β 는 단순한 w로 변한 것이 아니라 'fiw'로 변화한 것이다. 17)

이 변화의 공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beta > w$ 를 손상시킨다. 위의 공식은 $\beta > fiw$ 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 $\beta a, \beta \theta, \beta \wedge, \beta i$ '의 음운 연쇄는 자연스럽게 ' $\beta > w$ '의 공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으나 위와 같이 변화의 공식을 수정하게끔 하는 표기상의 문제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음운변화의 공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beta > w$ 의 공식은 음운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beta > fiw$ 도 결국은 음운대응이 완결되기 이전의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순경음의 소실로 생긴 자음의 공백을 fi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fi의 명은 그다지 길지 못하여 '수비 > 수이~쉬, 더러비- > 더러이-~더레-~더레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음절 축약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II장에서 살펴본 '뵤 > 위' 혹은 '뵤 > 이'의 변화는 순경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자질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위에서 볼 수 있는 유성 후두마찰음과의 결합적 발달은 선행하는 자음이나 모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8)

17) 줄고(1991:123)에서는 'yw'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w'가 강화된 'yw' (labiovelar)로 볼 수도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삭제하였다. 정승철(1994: 106-7)에 의하면 제주도 방언에서는 순경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크ϕ > 르'의 독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글뿔 (< 글월), 불루-(< 불이-)'와 같은 예들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들 예는 β 가 fiw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경우가 아닐까 한다.

'ㅍ > 위'의 경우는 그 예도 드물고 또 순경음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도 없으며, 더욱이 음운론적으로 /uy/로 일단 변화하므로 $\beta \rangle fiw$ 의 공식과는 별반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사화접미사나 피사동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인 '설이, 불이-'의 경우는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2.5에서의 논의에 근거해 본다면 이들 어형의 '이'는 [ɸi]인데 문제는 선행하는 음절말음 'ㄹ'이 연철 표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beta i \rangle \varphi i$ 라는 변화와 $\beta \rangle fiw$ 라는 변화가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설이, 불이-'의 경우에는 [fiɸi]와 같은 음성표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표기를 근거로 한 음운표시는 /fi/ 내지는 /i/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유성 후두마찰음을 음운체계 안에 설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면 β 는 선행음절말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w에 대응된 것으로 생각된다.

$\beta \rangle fiw \rangle w$

우리는 여기서 한 음운의 소실이 이웃한 분절음들과 어떤 역동적 상관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점진적인 음성적 과정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음운변화를 완성하는 음운대응의 공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음운이 위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김완진(1974)의 결론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음운이 위치한 환경에 따라 변이의 유형과 또 변화의 속도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것이 음운변화의 점진성을 만들어 내는 본질인 것이다.

IV

본고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음운변화라고 하는 통시적 음운과정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변이와 확산(variation & diffusion)'을 통해 이

18) 'ㄱ리오-'와 같은 경우는 '-오/우-'가 '-ㅍ/ㅅ-'에 소급되기 때문에 반모음 'y'의 첨가가 불가능하다.

루어진다는 기왕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Jeffors & Lehiste(1979: 1~2)에서 음성적 과정과 음성적 대응을 구별하면서 음성적 대응(궁극적으로 음운 대응)이 하나의 분절음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여러 음성적 과정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 것은 분명 합당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음성적 과정 속에 어휘적 점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이과정과 음성적 점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이과정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음변화에 있어서 수행상의 기제라고 할 수 있는 변이과정의 특징과,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음운대응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은 음운변화를 비약적(abrupt)인 것으로 이해한 생성주의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태도였다.¹⁹⁾

이제 '변이'의 개념에 의해 음운변화를 이해한다면 하나의 공시대 단면에서 나타나는 순경음 β 의 일견 예외적으로 보이는 변화에 대해서도 그 설명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규칙적인 음운 변화도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산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변화의 과정은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느닷없는 이야기이지만, 소장문법학파의 무예외성 가설(규칙성 가설)은 다시 구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설은 음변화 그 자체를 설명하는 기제가 아니라 변화의 결과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즉 음운변화는 결과적으로 규칙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다양한 변이의 과정들을 거친 $\beta \rightarrow w$ 라는 음운대응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19) King(1969: 105~119)에서는 음변화의 수행은 혁신적이지만 그 변화의 전파는 점진적이라고(the act of phonological change, its implementation, is abrupt, but the spread of a phonological change is gradual.) 보고 있다.

참고문헌

-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 김경아(1991), “중세국어 후음에 대한 일고찰”, 김완진선생희갑기념논총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_____ (1996),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김완진(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학술원논
문집 4.
- _____ (1972), “다시 $\beta > w$ 를 찾아서”, 어학연구 8-1.
- _____ (1974), “음운변화와 음소의 분포”, 진단학보 38.
- _____ (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0.
- 백두현(1992), 영남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송철의(1987), “15세기 국어 표기법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16.
-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1977) 탐출판사.
- _____ (1979), “중세국어 모음론의 현상과 과제”, 동양학 9.
- 이승녕(1954/1988), “순음고”, 〈이승녕국어학선집2〉, 음운편 II, 민음사.
- 이승재(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제3권 1호.
- 이철수(1985), 한국어음운학, 인하대출판부.
- 정승철(1994),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
- 최명옥(1982), 월성 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전승(1975), “중세국어에서의 이화작용에 의한 원순성 자질의 소실에 대
하여”, 국어연구 33.
- Anttila, R.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 Chomsky, A.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Hock, H.H.(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Trends in Linguistics, Studies and Monographs 34*, Mouton de Gruyter.
- Hooper, J.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Jakobson, R.(1929), "Remarques sur l'évolution phonologique du russe comparée à celle des autres langues slaves", in Jakobson(1962).
- Jeffors, R.J. & I. Lehiste(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The MIT Press.
- Jones, C. ed.(1993), *Historical Linguistics*, Longman Publishing.
- King, R.D.(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Inc.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Kiparsky, P.(1988/89), "Phonological Change", *Linguistics : The Cambridge Survey I*, ed. by F.J.Newmeyer,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95), "The Phonological Basis of Sound Change",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ed. by J.Goldsmith, Basil Blackwell Ltd.
- Lass, R.(1984), *Phonology*, Cambridge Univ. Press.
- Lehmann, W.P.(1982), "Introduction: Diachronic Linguistics", *Perspectives on Historical Linguistics,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vol.24*,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Martinet, A.(1975), *La évolution des langues et reconstruc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Schane, S.A.(1973), *Generative Phonology*, Prentice-Hall Inc.